



13분 만에 골...골...골 손흥민 드디어 터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경기 도중 헤트트릭을 달성하고 6-2로 팀의 승리를 이끈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스터시티전 후반 14분 교체 투입 '헤트트릭' 기록 9경기만에 골 팀 6-2 승 견인 "당혹감·실망감 사라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30)이 레스터시티와 경기 후반 교체 선수로 출전, 세 골을 몰아치며 헤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4분 히샤를리송 대신 투입돼 세 골을 몰아넣고 팀의 6-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 리그 경기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공식전 8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손흥민은 팀이 3-2로 앞선 상황에서 혼자 세 골을 내리 터뜨렸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에 세 골을 넣는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2020년 9월 사우샘프턴과 경기 4골, 올해 4월 에스턴 빌라와 경기 3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에 앞서서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013년 함부르크전, 2015년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한 경기 3골을 넣었고, 토트넘 소속으로도 2017년 3월 말릴을 상대로 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온 것은 2021년 4월 뉴캐슬전 이후 이번이 1년 5개월 만이었다. 두 팀은 전반까지 2-2로 난타전을 벌였다. 레스터시티가 전반 6분 페널티킥으로 1-0 선제골을 뽑았으나 토트넘이 전반 8분 해리 케인, 전반 21분 에릭 다이어의 헤딩 슈트로 2-1 역전했다. 전반 41분 레스터시티 제임스 매디슨의 오른발 슈트로 2-2 동점이 된 가운데 전반이 끝났고, 토트넘은 후반 2분 만에 로드리고 벤투라가 상대 수비의 공을 뒤에서 가로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포로 이날 경기의 결승골을 뽑아냈다. 이후로는 손흥민의 '골 잔치'였다. 후반 14분 교체로 나온 손흥민은 후반 28분 수비

2명을 앞에 두고 페널티 지역 정면 오른발 중거리 슈트로 시즌 첫 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골이 들어갔을 때 믿기지 않았다. 당혹감, 실망감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더니 움직임 수가 없었다"면서 "그냥 멍하니 서서 관중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었다"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후반 39분 케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갑아차기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을 42골로 늘렸다. 손흥민은 후반 41분 왼쪽으로 쇄도하면서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번에는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았다. 선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지만, 비디오판

독(VAR)으로 득점으로 인정됐다. 토트넘 구단에 따르면 손흥민의 첫 골부터 세 번째 골까지는 '13분 21초'가 걸렸다. 손흥민은 EPL에서 토트넘 구단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교체 출전한 뒤 헤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EPL을 통틀어도 7차례 밖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며, 2015년 9월 에버턴 소속 이던 스티븐 네이스미스가 첼시를 상대로 3골을 넣은 게 손흥민 이전 사례였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6-2 대승을 거둔 토트넘은 5승 2무로 기록, 맨체스터시티와 동률을 이뤘으나 골 득실에서 뒤져 리그 2위를 기록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손흥민은 귀국길에 올라 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코스타리카와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7연패 KIA, 5위도 불안하다

삼성에 6-9 역전패...6위 NC에 1.5게임차 쫓겨



KIA 타이거즈가 7연패 늪에 빠졌다. 6위 NC 다이노스는 1.5경기 차로 좁혀졌다. KIA가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15차전에서 6-9 역전패를 당했다. 옛박자 투수 교체 속 승기를 내준 KIA는 7연패에 빠졌다. 이날 NC가 키움 히어로즈에 5-1 승리를 거두면서 1.5경기 차까지 쫓아왔다. KIA 이의리가 삼성 수아레스의 마운드 맞대결, 초반은 마운드 대결 양상이었다. 하지만 0-0으로 맞선 5회 이의리가 제구 난조와 수비 실수에 흔들렸다. 이의리가 선두타자 구자욱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뒤 폭투로 무사 2루에 몰렸다. 이원석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오선진의 중전 안타로 1실점을 했다. 이어 김태군에게 볼넷을 허용한 이의리가 박승규를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김상수와 9구 승부를 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아쉬운 5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5회까지 수아레스에게 2개의 안타 밖에 뽑아 내지 못했던 KIA 타선이 6회 불을 뿜었다. 박동원의 좌중간 안타를 시작으로 김석환이 연

속 안타를 만들었고, 김도영의 볼넷까지 더해지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류지혁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0의 침묵을 깬 KIA는 고종욱과 나성범의 연속 안타로 3-4로 추격했다. 이어 앞선 실점 상황에서 아쉬운 실책을 기록했던 소크라테스가 적시타를 날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형우의 1루 땅볼 때 3루에 있던 고종욱이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5-4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어진 수비에서 바로 KIA가 리드를 내놨다. 지난 7월 30일 SSG전 이후 부상으로 오랜시간 자리를 비웠던 전상현이 이의리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부담 많은 상황에서 복귀전에 나선 전상현, 결과는 좋지 못했다. 오재일에게 우측 2루타를 내준 뒤 구자욱에게 다시 우전 안타를 맞았다. 무사 1-3루에서 전상현이 이원석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무사 만루가 됐지만 벤치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지찬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5-5, 강민호의 좌전안타로 5-6이 된 뒤에야 서재용 코치가 투수 교체를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뒤늦게 장현석이 출격해 실점 없이 두 아웃은 채웠지만 이미 분위기는 삼성에 기울었다. 8회말에도 KIA의 실점이 올라갔다. 7회 실점 위기를 정리했던 이준영이 8회를 볼넷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강민호와 김현준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을 했다. 무사 1-3루에서 김재열이 투입됐고,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점수는 5-8까지 벌어졌다. 이어 김재열이 강한울과 피렐라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5-9로 8회말이 끝났다. KIA는 9회 박동원의 솔로포로 1점은 만회했지만 더는 추격하지 못하고 6-9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우승 삼페인' 다음 기회에



전남드래곤즈 이준민이 17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충남과 비긴 안양, 21일 대전 경기 지켜보아야 K리그2 전남, 대전과 1-1...연승 못 이어가

20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한 전남드래곤즈가 연승은 잊지 못했지만 승점을 추가했다. 전남이 지난 1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40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앞선 14일 안산 원정에서 7골을 폭발하면서 7-1로 21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전남은 앞선 대승의 기세를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슈팅에서 앞선 수치를 보였다. 대전을 상대로 58%의 점유율을 보였고, 11개의 슈팅을 날려 6개를 유효 슈팅으로 남겼다. 대전은 7개의 슈팅과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선제골도 전남이 가져왔다.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박성철이 찰라전 공을 잡은 이준민이 오른발로 공을 띄웠다. 포물선을 그린 공이 상대 골키퍼 이준서를 넘어 골대로 향했다. 하지만 후반 26분 전남이 동점골을 허용했다. 대전 진영에서 길게 공이 넘어왔고, 공을 잡은 김인균이 전남 수비진을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전남의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한편 광주FC의 우승 삼페인은 터지지 않았다. 40라운드 휴식팀인 광주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2위 FC안양이 충남아산을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나섰고, 광주는 앞선 안양전 2-1 승리로 승점 78을 확보했다. 6경기가 남은 안양(승점 62)이 6전 전승을 거두더라도 광주 남은 4경기에서 '승점 3'을 더하면 우승을 확정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안양이 17일 충남아산, 21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1패를 하거나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 광주가 앞서서 우승 삼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안양이 이날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 실낱같은 1위 가능성은 남겨놨다. 안양이 21일 경기에서 패배 또는 무승부를 기록하면 광주는 자동으로 K리그2 우승팀이 된다. 안양이 만약 승리하더라도 광주는 26일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K리그1 복귀를 확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